

1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(월별 기업경기동향)

□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7조('18.5.3 제정)

⑤ 시장은 시책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1년 서울시 중소기업 경기조사
 - 코로나19의 기업경영 영향 및 비대면조사 가능한 경기조사 방식 활용
- 사업목적 : 서울 산업현황과 기업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 경기조사를 실시하여 시책 개발 및 중소기업 지원계획 수립 시 활용
- 사업기간 : '21. 6월 ~ '22. 1월
- 사업예산 : 198백만원 ※ 수행기관 : 메트릭스리서치

□ 조사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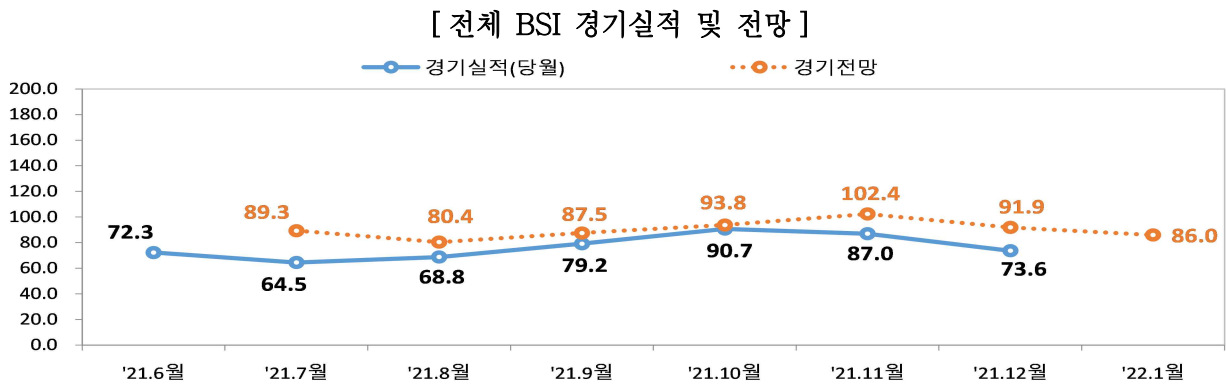
- 기업경기실사지수(BSI¹⁾) 및 기업이슈 조사 통한 월별 경기동향 모니터링
 - 코로나19 장기화 등 대내외 경제 불안 속에서 중소기업 체감경기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
- 조사대상 : 서울 소재 중소기업 2,000개
 - 모집단 출처 : '2019년 서울시 사업체조사' 자료 가공
 - 표본 추출 : 매출액 5억 이상 기업대상, 업종별(14분류) 그룹화하여 추출
- 조사주기 : 매월 마지막 주간 7일 내외('21.6~12월, 7회 수행)
- 조사방법 : 전화조사
- 조사항목 : 경기전망, 경영상 애로사항, 이슈문항 조사 등

1) Business Survey Index :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동향 및 전망을 조사한 지수로서, 값이 100보다 크면 긍정적 응답의 업체 수가 더 많음을 나타냄(0~20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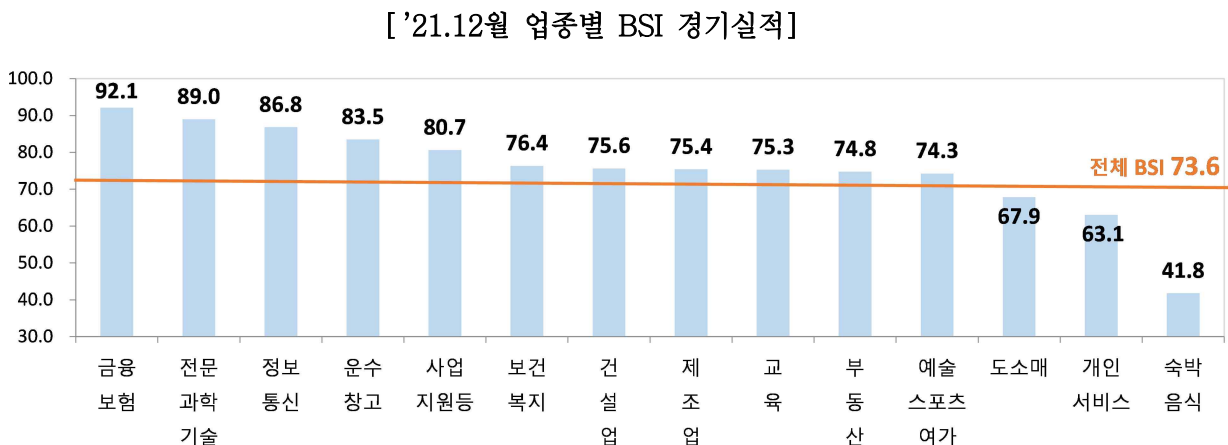
□ 주요결과

1. 전체 BSI 경기실적 및 전망

- '21년 조사기간 중 서울 BSI는 7월(64.5) 최저, 10월(90.7) 최고였으나,
 - 7월 BSI 실적이 낮아진 원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악화되었기 때문
 - 10월은 4차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도 불구하고 명절 등 계절적 요인과 '위드코로나' 기대감 등으로 경기 개선되었으나, 이후 확진자 증가폭 크게 확대되면서 감소로 전환
- 규모별로는 전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BSI 실적이 낮게 나타남
 - '21.12월 기준 BSI 실적 : 중기업 79.2 > 소기업 74.6 > 소상공인 68.6



-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, 정보통신업 등 비대면이 가능한 업종은 코로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반면, 숙박음식점업, 개인서비스업,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업은 여전히 부진



2. 경영상 애로사항

- 서울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으로는 ‘불확실한 경제상황, 내수부진, 원자재 가격 상승, 인건비 상승’ 등으로 나타남
 - '21.8월까지 상위 3위는 내수부진, 불확실한 경제상황, 인건비 상승 순이었고, 9월 이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부상하고, 인건비 상승이 뒤를 이었음
 - 11월부터 경영상 애로사항 순위는 불확실한 경제상황> 내수부진> 원자재가격 순

[월별 경영상 애로사항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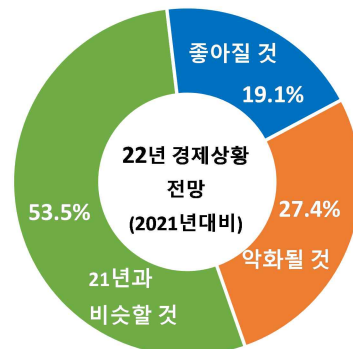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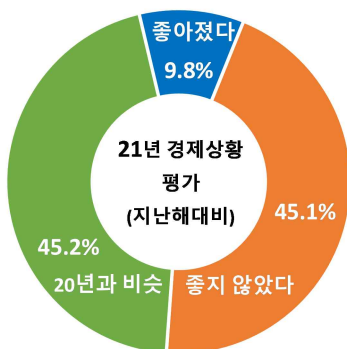
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1순위	내수부진 23.7%	내수부진 22.2%	내수부진 24.8%	내수부진 24.2%	내수부진 21.9%	불확실한경제상황 19.2%	불확실한경제상황 23.6%
2순위	불확실한경제상황 16.4%	불확실한경제상황 19.7%	불확실한경제상황 21.6%	불확실한경제상황 17.6%	불확실한경제상황 17.3%	내수부진 16.5%	내수 부진 19.1%
3순위	인건비 상승 9.8%	인건비 상승 10.1%	인건비 상승 9.2%	원자재가격상승 9.3%	원자재가격상승 15.5%	원자재가격상승 13.7%	원자재가격 상승 13.6%

- 대부분의 업종에서 경영상 애로사항을 ‘불확실한 경제상황, 내수부진, 인건비 상승, 원자재 가격 상승’ 등을 꼽았음
 - 한편, 업종별 특징은 운수창고업 및 정보통신업에서는 인력수급난이, 금융보험업은 금리세금, 예술스포츠여가에서는 운영자금 등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대적으로 높았음

3. '21년 경제 상황 및 '22년 전망

- '21년 전반적 경제상황에 대해 '20년 대비 좋아졌다'는 9.8% 수준에 불과
 - '좋지 않았다(45.1%)' 및 '20년과 비슷하다(45.2%)'는 응답이 대부분
- '22년 경제 상황이 '호전될 것이다'라는 응답이 19.1%로 낮아 올해 경제상황도 부정적
 - '21년과 비슷(53.5%)'하거나, '더 악화될 것(27.4%)'으로 전망

[21년 경제 상황 및 22년 전망에 대한 서울 중소기업 응답 비율]



□ 시사점 및 대책

- 코로나19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었으나 금융업, 정보통신, 전문과학기술, 온라인쇼핑 등 디지털·비대면 가능 업종에서는 오히려 성장이 가속화 되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
 - BSI 실적이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고, 코로나19 충격이 작았던 금융, 정보통신, 전문과학기술은 서울 특화 산업으로 이들 업종의 성장은 서울 경제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
 - ICT·금융·신기술(핀테크)·바이오·비대면 산업 등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대표 지식서비스산업에서 서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활성화 근거자료로 활용
- 대면서비스업종(음식점, 숙박업, 개인서비스업 등) 여전히 경기침체에 직면하고 있고, 물가상승 등으로 취약계층 피해가 누적되고 있어 민생 어려움 지속 및 실물경제 회복 지연 우려
 - 소상공인 지원, 민생경제회복 등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내수 회복 및 피해 누적된 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함
 - 향후 온라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·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들이 공공 및 민간의 O2O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임
- 고용시장 중심으로 신양극화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, 자동화·온라인화가 가속화되면서 구조적으로 고용 감소 추세 우려
 -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는 환경하에서 ICT산업 등 미래 신성장산업 일자리 창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 개발 등 기초자료로 활용

['22년 경제정책 방향]

